

세계서 가장 붐빈 국내선 제주-김포 노선

김용현 기자

2020-04-24 (금)

지난해 기준 1700만석 공급 하루 4만8000석 달해
 유명관광지에 섬 특성상 교통수단 한정 수요 몰려

전 세계 국가의 항공국내선 중 가장 혼잡한 노선이 제주-김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소재 항공 및 여행데이터 분석기관인 OAG에 따르면 2019년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 중 국내선의 10대 노선 중 9개 노선이 아시아 및 태평양에 있는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 10 Global Domestic Routes

Route			Seats
CJU-GMP	Jeju	Seoul Gimpo	17,426,873
CTS-HND	Sappore New Chitose	Tokyo Haneda	12,498,468
FUK-HND	Fukuoka	Tokyo Haneda	11,400,018
HAN-SGN	Hanoi	Ho Chi Minh	10,253,530
MEL-SYD	Melbourne	Sydney	9,958,500
BOM-DEL	Mumbai	Delhi	8,230,822
PEK-SHA	Beijing Capital	Shanghai Hongqiao	8,117,461
JED-RUH	Jeddah	Riyadh	8,018,205
HND-OKA	Tokyo Haneda	Okinawa	7,704,098
HND-ITM	Tokyo Haneda	Osaka Itami	7,248,300

OAG는 전세계 대형 항공사 및 공항을 대상으로 노선운항현황, 항공 및 여행시장 분석, 정시운항성(OTP) 등급 평가 등의 항공 및 여행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은 제주(CJU)-서울(김포, GMP)로 연간 1700만석을 운항하고 있다. 하루 평균 4만8000석에 달한다.

OAG는 제주도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가지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비행거리가 245km로 짧지만 섬이란 특성상 제주를 연결할 수 다른 교통수단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서울 노선에 이어 도쿄 하네다 공항을 기점으로 삿포로(CTS), 후쿠오카(FUK), 오키나와(OKA), 오사카 이타미(ITM) 등 4곳이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으로 분석됐다.

가장 붐비는 10대 국제 노선은 홍콩(HKG)-타이페이(TPE)로 연간 800만석으로 하루 2만2000여석으로 분석됐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내 노선 분석에서는 제주-서울노선이 10위를 차지했다. OAG는 이 노선에만 9개의 경쟁 항공사가 있는 등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제주-김포노선 운항실적 및 탑승객은 8만7816편에 1701만7199명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만7986편에 1544만3279명에서 2016년 9만2627편에 1686만1399명, 2017년 9만1147편에 1702만6002명, 2018년 8만7729편에 1639만6749명으로 1600만명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해 1700만명 이상 돌파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전체 운항실적은 17만5366회(출발 8만7697회, 도착 8만7669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공항 활주로의 경우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횟수)은 35회이며, 연간 수용능력이 17만2000회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3366회를 초과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역시 3131만6394명으로 시설수용능력 3170만명의 98.7%까지 근접하는 등 포화가 심해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